

가스기업, 사업 다각화로 수익창출

E1, 국제상사·이트레이드증권 인수 ... LPG 가격상승으로 사업확대

가스기업들이 사업 다각화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제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으로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LPG 수입 판매 중심의 단일 수익모델로는 더 이상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로 풀이된다.

가스업계에 따르면, SK가스는 최근 해양심층수 개발기업인 울릉미네랄 주식 67%를 취득하며 해양심층수 사업에 진출했다. SK가스가 인수한 울릉미네랄은 해양심층수 사업면허 1호를 갖고 있으며 육지에서 130km 떨어진 울릉도 바다 밑 650m에서 채취한 해양심층수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CJ제일제당이 국내 최초로 내놓은 <울릉 미네워터> 제품에 원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 SK가스는 산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전문기업의 지분 인수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LPG 수입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E1은 일찌감치 사업영역 확대에 나섰다.

E1은 삶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 아래 브랜드와 스포츠레저 사업 진출 기회를 모색하다 <프로스펙스> 브랜드로 잘 알려진 국제상사를 2007년 1월 인수했다.

E1은 2008년 2월 국제상사의 사명을 LS네트웍스로 변경하고, BMW모터사이클 등 해외자동차 수입 판매에도 뛰어들었다.

아울러 E1은 LS네트웍스 주축의 컨소시엄을 통해 4월 무점포 온라인 전문증권사 이트레이드증권을 인수하는 양해각서를 맺는 등 금융업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또 E1은 2007년 2월 인천의 유희부지를 활용해 3만톤 수준의 다목적 부두시설과 컨테이너 야적장, 최신식 하역시설 등으로 구성된 E1컨테이너터미널 착공에 들어가는 등 물류분야 신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6/24>